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구혜인

제작년, 2015년의 흑산도에서 진행했던 해군 의료 봉사활동을 이후로 두 번째로 해군과 수의과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번 참여했을 때는 본과 1학년이라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학교의 수업, 교수님의 사전교육으로 다양한 일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TNR에 대한 사전교육은 우리가 이러한 수술을 왜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정방법이나 어떻게 봉사가 진행되며, 그 곳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미리 배워 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덕적도의 경우, 동물병원이 없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인천까지 배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의료 취약 지역에서 TNR 및 진료,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봉사 1일차 저는 수술팀에 참여를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포획틀에 야생 고양이를 미리 잡아 먹이를 주며 돌보고, 봉사 1일차에 모든 야생 고양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TNR 봉사활동에서는 클리핑만 해서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수술과정에 투입이 되어 처음부터 고양이가 깰 때 까지의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TNR을 하면서 부족했다고 생각한 점은 고양이에 대한 케어의 부족입니다. 우선 각각의 고양이에 대해 천으로 덮어 격리를 시켜 주지 못한 점입니다. 맨 처음 도착했을 때 고양이가 아주 큰 천에 한번에 덮여있었고, 그 이후에도 마땅한 천을 찾지 못해 고양이들을 불안하게 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사용할 이불이나 천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들을 마지막날에 'return' 해 주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줄 먹이나 물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점입니다. 계장님께 캔 사료를 지원받아 마지막날 밤에 밥을 줄 수 있었지만,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김재영 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 2일차 저는 이인형교수님과 덕적도의 마을과 소야도를 돌아다니며 DHPPL 백신 주사와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을 예방해주는 revolution을 발라주었습니다. 봉사 3일 차 역시 마지막으로 한마리의 중성화수술 및 진료소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가를 방문하여 DHPPL, revolution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를 하기 전,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반겨주셨고,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셨고, 이러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실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오히려 ‘덕적도’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제 마음이 치유가 되었던 뜻깊은 2박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박준호

이번 학군 의료봉사활동은 기존 봉사활동과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우선 개체수의 차이가 그 증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봉사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마련된 철저한 교육 및 실습 또한 기존 봉사활동과의 차이점이라 생각한다.

흑산도, 울릉도, 덕적도의 봉사활동을 참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런 변화를 통해 봉사하는 입장에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

이번 덕적도의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라는 두 글자 아래 모인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교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힐링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심규영

학군 의료봉사단원으로서 올해로 3번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봉사활동 모두 준비하는 노력이 적지는 않았지만 특히 '17년 봉사활동은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 준비기간 때문인지 봉사활동을 출발하기 까지 더욱 힘들게 느껴진 봉사활동이였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준비과정이 고되고 힘들수록 그 만큼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하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덕적도는 1,500명의 인구를 가진 제법 큰 섬으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거주하고 계셔서 인지 반려동물의 수는 제법 많아 덕적면 추산 대략 300여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없어 반려동물들이 아프거나 하면 배를 타고 인천까지 다녀오시는 따뜻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신 섬이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해변을 여러개나 갖고 있을 만큼 관광자원도 풍부한 곳으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섬에 몇 해 전부터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길 고양이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길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시는 주민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사전회의를 통해 이번 봉사활동은 반려동물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길 고양이 TNR을 주요 활동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사전 준비한 대로 3개 팀으로 나누어 1개 팀은 덕적면과 해군 장병들의 도움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포획되어진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였고 2개 팀은 가구들이 산재해 있어 진료소로 접근성이 제한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이신 점을 감안하여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고양이 수술팀은 대한 고양이 수의사협회장이신 김재영 원장님을 중심으로 수술 전 신체검사부터 수술 후 마취회복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준비기간 동안 관련된 실습을 꾸준히 실시한 학부생들도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진료팀은 서강문 교수님과 이인형 교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2개 조로 나누었으며 찾아가는 진료를 실시한 덕분에 덕적도의 반려동물 진료를 모두 마치고 덕적도 인근의 소야도까지 찾아가는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하나 없는 섬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이라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반려동물을 가족같이 생각하시고 아프면 배를 타고 인천까지 병원을 찾아가 주시는 분들이 이외로 많이 계셔서 반려동물들은 특별히 아픈 곳 없이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낯을 더웠지만 가는 마을마다 환대해 주시고 시원한 물부터 수박까지 챙겨 주셔서 시골의 인심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준비를 잘 하고 열심히 임했다

면 더 나은 활동이 되었을 텐데 하는 섭섭한 마음과 올해도 내가 가진 지식과 에너지를 좋은 곳에 나누고 왔다는 시원한 마음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마음과 함께 예비 수의사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과 수의사로서의 사명감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신세한

저는 이번에 3회째를 맞는 학군 의료 봉사활동에 처음 참가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6월 27일 화요일부터 6월 29일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봉사활동 1주일 전부터 사전 준비교육을 하였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짐을 준비하였습니다. 봉사활동에는 저를 포함한 학부생들과 서강문 교수님, 이인형 교수님, 김재영 원장님, 수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1일째인 27일에는 덕적도에 도착하여 짐을 풀 다음,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부터 덕적도 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서강문 교수님의 지도하에 따라서 다른 3명의 학부생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강아지 예방접종용 종합백신(DHPPL)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사전교육에서 덕적도에는 평균 1가구당 1~1.5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1가구당 키우는 반려동물의 수가 많았습니다. 또한, 말티즈, 시츄와 같은 소형견보다는 시베리안 허스키, 진돗개, 세인트 버나드 등 대형견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서 처음에 백신접종을 할 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견의 예방접종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 분들께서 보정을 잘해 주셨고, 성격이 온순한 개들이 많아서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일째인 28일에는 덕적도의 친환경에너지홍보관 2층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날과 달리 길고양이의 TNR사업의 일환인 중성화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TNR사업이란 Trap, Neuter, 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수술을 한 다음, 다시 원래있던 영역에 방사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여 생태계를 안정화시키고, 길고양이로 인한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마리의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수의사 선생님들의 수술을 보조하고, 길고양이의 수술 전, 중, 후의 관리를 담당하였습니다. 사전교육에서 느낀 것과 달리 막상 실제로 해보니 수술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전, 중, 후 관리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일째인 29일에는 점심식사 이전까지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전에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부탁하신 주인 분이 키우는 강아지 5마리의 백신접종을 하였고, TNR을 실시한 길고양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방사하였습니다. 점심식사 이후 덕적도를 둘러본 다음,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의료 소외지역인 덕적도에서 진행한 의료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학부생의 신분으로 많은 지식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이나마 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일차의 경우 가구간의 이동시간이 길었고, 2일차의 경우 일정이 빡빡해서 휴식시간을 거의 갖지 못해 체력적으로는 부담이 되었었지만, 많은 동물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사실에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훗날, 훌륭한 수의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동물들에게 많이 베풀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양소리

봉사활동 준비기간 직전에 있었던 2주간의 기말고사로 인한 심신의 피로도는 무엇보다도 이번 덕적도 학·군 의료 봉사활동 준비기간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 일정까지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기말고사 종료 후 바로 다음날부터 참석인원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약품, 의료기재 등을 준비하고, 또 봉사활동 진행에 있어서 필요한 마취, 보정법, 주사법 등의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했다보니 쌓였던 피로를 풀 새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참석하는 인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밝은 분위기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6일 월요일, 출발하기 전 약품, 의료기재 등 필요한 물품들을 다시 확인하고, 출발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7일, 화요일 오전 배를 타고 덕적도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수의대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인천해역방위사령부(이하 '인방사') 이동장병숙소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27일 오전에 인천여객터미널로 다시 이동하여 덕적도행 여객선을 타고 1시간 15분 가량 이동했습니다. 덕적도를 처음 봤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 섬이 크고, 풍경도 멋있었고, 무엇보다도 날씨가 선선해서 봉사활동의 시작이 좋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덕적도 에너지 홍보관 2층으로 이동해서 각 팀별로 임무를 나누어서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개 팀은 홍보관에 남아서 고양이 TNR을 위한 준비를 하고, 나머지 2개 팀은 각 마을(리)별로 이동하면서 주민들 반려동물에 대한 백신 및 구충을 위한 준비를 실시했습니다. 저도 이동진료팀에 속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면사무소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 어르신들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시기도 하고, 혹은 너무 크기가 크고 여러 마리를 데려올 수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차량으로 같이 이동해서 현장에서 간단한 진료 및 백신 접종, 구충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사활동 내내 어르신들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봉사해주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이번 봉사활동을 오길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할 음료수도 주시고,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28일, 수요일 수술팀이 되어서 고양이 TNR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날 수술팀을 맡았던 팀원들이 고생하면서 수술준비부터 실시, 회복단계까지 과정을 체계를 잡아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포획틀에 포획된 고양이를 한 마리씩 보정틀로 이동시켜서 주사마취(KTM 주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술준비(항생제 투여, clipping, catheterization 등)를 거쳐서, 수술대로 이동하여 소독하고 수술진행, 그리고 술후 회복까지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임무분담하여 진행했습니다. 29일, 목요일 계획상으로는 진료가 없었지만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수술 및 백신접종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 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하나 둘씩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지만,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지 등을 실제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